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64호 1판 (음력 10월 8일)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분노의 민심’ 30만 촛불로 타올랐다

박대통령 ‘2선 후퇴’ 없는 사과
광주 등 전국 곳곳 대규모 집회
“퇴진” “하야하라” 성난 목소리

금남로 뒤덮은 “박근혜 퇴진” 지난 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시국 촛불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 피켓을 들고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와 잇따른 시국선언으로 분출됐다.

〈관련기사 2·3·4·6·18면〉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반감이 더욱 커져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30만 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일제히 열렸다.

또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예정되는 등 최근 시국과 관련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주의 광주행동,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 사드저지 광주행동 등은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 시민 등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피켓, 구호 등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중·고교생과 유모차를 앞세운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나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반영했다. 앞선 오후 5시께는 청년단체와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청년학생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옛 무등경기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택시 조합원들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믿지 않게 됐다”며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국정붕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렸다. 앞서 오전부터 열린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는 농민들과 진보 성향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으나 오후 들어 광화문 광장에는 가족이나 연인 단위의 일반 시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문화제가 시작할 때 5만 명이었다가 행진이 끝날 무렵에는 20만 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경찰 추산 인원도 2만 1000명에서 시작해 4만 3000명까지 늘었으며 특히 가족 단위로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날 오후 7시5분께 종로구 종로3가 귀금속도매상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 앞을 흉기를 든 남성이 막아서고 위협했으나 곧바로 시민에 의해 제압당했다.

또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대표 주모씨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빌딩 남측 보도에서 집회에 참석한 여고생 김모(16) 양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행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도 행진을 허용해 행사 도중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한편 경북 경주, 제주, 울산,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과 학생 등이 시가지에서 촛불문화제를 갖고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朴, 최순실 국정 농단 ‘대국민 담화’ … 별도특검도 수용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또다시 사과하고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줄곧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라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다가 최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최순실씨와 사실상 국정 전반을 모두 상의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모금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지, 청와대 문건유출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게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째려본 우병우

검찰 출석 고압적 자세 … 횡령·직권남용 혐의 부인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은색 차를 타고 검찰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냐’는 취재진의 첫 질문에 기자를 한번 응시한 뒤 정면을 쳐다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같은 날 구속했다.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광주 5·18 구 묘역서 영면

금남로 노제 3000여명 참석

‘국가폭력’에 희생된 보성 출신의 고(故) 백남기 농민이 6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망월묘역(5·18 구 묘역) 3묘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향년 69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14일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지 317일 만인 지난 9월25일 숨을 거뒀고, 41일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관련기사 6면〉

‘생명과 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했고, 같은 날 고인의 고향인 보성으로 내려와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이튿날인 6일 보성군 웅치면 자택에서 제사를 지낸 장례위원회는 광주 금남로로 이동해 3000여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를 지낸 뒤 망월묘역으로 이동해 하관식을 가졌다.

1947년 보성군 웅치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박정희 정권에서 2차례 제적당한 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로 신군부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3·1절 특사로 풀려나 가석방된 뒤 농민의 길을 걸으면서 농민운동에 앞장서 왔다.

한편 고인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대를 밝힌 노래-혁명가 ▶18면
광주FC 8위·정조국 득점왕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